

벤처기업의 사회적정당성과 성과 간의 관계*

박찬우 (중앙대학교 경영학과 박사과정)**

최창범 (중앙대학교 경영학부 교수)***

국 문 요 약

본 연구는 벤처기업에 대하여 인식된 사회적정당성과 경영성과 간의 관계를 조사하였다. 특히, 사회적정당성을 벤처기업의 특성에 맞추어 과거경력, 조직역량, 시장관련, 정부관련 정당성으로 구분하여 벤처기업의 재무적, 비재무적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였다. 국내 벤처기업 300개를 대상으로 설문 조사하여 자료를 수집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사회적정당성이 벤처기업의 재무적, 비재무적 성과에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를 도출하였다. 즉, 벤처기업 임직원의 창업경력 등 과거 과거경력과 우수 인재 보유 등 높은 조직역량, 차별화된 상품제공에 따른 시장 및 소비자들로부터의 신뢰, 외부 투자자들과 정부로부터의 자원 획득이 이해관계자들인 투자자들로부터 정당성을 부여받아 벤처기업의 재무적, 비재무적 성과에 정(+)의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를 도출하였다. 이는 사회적정당성을 부여받아 벤처기업을 운영한다면 기업의 생존 가능성을 높일 수 있음을 의미한다. 또한, 기존 사회학적 연구를 경영학적 연구로 확대하여 벤처기업의 실질적인 성과에 대한 영향 관계를 측정함으로써 생존을 위한 새로운 기준을 제시하였다는 시사점이 있다.

핵심주제어: 벤처기업, 사회적정당성, 재무적 성과, 비재무적 성과

1. 서론

국내 벤처기업 수는 2020년 기준 39,511개사로 역대 최대 규모로 증가했으며, 2018년 기준 벤처기업 중 매출액 1,000억 기업은 10년 연속 증가해 587개를 달성할 정도로 성장하였다. 그러나 최근 중소벤처기업부에서 발표한 창업기업의 5년 생존율은 29.2%로 10개 기업 중 7개 기업은 5년을 지속하지 못하고 폐업이 이루어지며, 이는 OECD주요국 평균인 41.7%에 한참 못 미치는 상황이다(벤처기업협회, 2020).

벤처기업의 생존율이 낮은 원인은 기존 기업들과 달리 생존에 필요한 경영자원 획득에 어려움을 겪는 것이 그 이유이다. 그러나 벤처기업의 성공을 위한 기존의 연구들은 창업자의 의사결정(Ashforth & Gibbs, 1990; Dowling & Pfeffer, 1975; Suchman, 1995), 벤처기업의 경영자가 가진 지식과 경험(Burgel & Murray, 2000; Cassar, 2014; Dimov, 2010; Oviatt & McDougall, 1995)등과 같이 경영자 혹은 기업 수준의 요인으로 벤처기업의 성장과 관련된 현상들을 분석한 연구가 대다수이다. 벤처창업 시장에서 뿐만 아니라 기업의 사회적 책임 활동의 요구에 대한 실행은 기업의 재무적, 비재무적 성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요인이 된다(이수정·윤정구, 2012). 이러한 사회적 책임활동에 대한 정당성 인식과 조직의

구성원 간의 관계는 최고경영자의 리더십과도 연관 지어 설명할 수 있다(Mintzberg, 2009). 기업의 경우 자신이 속한 사회와 시장에서 생존하기 위해 기업의 필요성과 존재 가치를 인정받아야 하는 당위성을 가지고 있다(강문정, 2007).

이에 본 연구에서는 사회적정당성의 개념을 도입하여 벤처기업의 재무적, 비재무적 성과 창출을 통한 생존율을 높이기 위한 연구를 진행하고자 한다.

사회적정당성이란 해당 조직이 사회적으로 동의된 규칙, 규범, 기준, 실행 방식 등을 따르고 있는지에 대한 사회 구성원들의 인식 정도로 정의된다(Aldrich & Fiol, 1994). 이러한 사회적정당성은 벤처기업을 둘러싼 이해관계자들에게 벤처기업이 사회적정당성을 획득해야 생존 가능성이 있는 기업으로 보이도록 만들며, 결국 이러한 정당성을 획득한 벤처기업이 필요한 자원을 획득하여 생존 가능성을 높게 된다. 즉, 신생기업의 생존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회적 자원이 바로 사회적정당성 이라고 할 수 있다(Aldrich & Fiol, 1994).

Li et al.(2021)은 기업가적인 정신과 녹색 경영과의 관계에서 사회적정당성의 중요성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그리고 경영자의 유형도 사회적정당성과 관련이 있음을 밝히고 있다. Nowacki & Monk(2020)는 혁신기업에서 필요한 요인 중에 하나로 정당성을 강조하기도 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은 사회적정당성과 벤처기업의 경영성과 간의 관계를 조사하는 것이다.

* 이 논문은 박찬우의 박사학위 논문(중앙대학교)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음

** 제 1저자, 중앙대학교 경영학과 박사과정, pcw2512@naver.com

*** 교신저자, 중앙대학교 경영학부 교수, choilee@cau.ac.kr

· 투고일: 2021-08-18 · 1차 수정일: 2021-10-08 · 2차 수정일: 2021-10-22 · 게재확정일: 2021-10-23

즉, 이들 네 가지 차원에서 이해관계자들에게 벤처의 존재가 정당하다고 보이는 정도가 벤처의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는 것이다. 이어지는 제2장 이론적 배경에서는 사회학에서 기원한 사회적정당성의 개념이 벤처기업의 연구에 어떻게 적용되어 왔는지를 논의한다. 기존의 대부분의 연구는 사회학에서 정의한 사회적정당성의 개념을 그대로 가져와 벤처기업에 적용하려는 개념적 연구들이 주를 이룬다. 제3장 가설 설정에서는 선행연구와 차별적으로 정의한 네 가지 차원에서의 사회적정당성의 개념을 바탕으로 벤처의 경영성과와의 관계를 가설 설정한다. 제4장 실증분석에서는 설문조사를 통해 수집한 300개의 벤처기업 표본을 사용하여 가설을 검증하였다. 제5장 결론에서는 가설검증 결과를 논의하고 시사점과 연구의 한계에 대하여 서술한다.

II. 이론적 배경

2.1. 사회적정당성

사회적정당성은 최초 정치학에서 파생되어 나온 것으로 사회학자인 막스 베버에 의해서 처음으로 사용되었다. 베버(Weber, 1968)는 사회적정당성이란 사회적으로 정당한 순서를 가진 신념에 의해 좌우되는 행동이라 정의하였다.

기업이 자신이 속한 사회적인 환경 속에서 생존하고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관련 대중들과의 원활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들로부터 기업의 필요성과 당위성, 존재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어야 하며(강문정, 2007), 이러한 기업의 활동이나 정책이 바람직한가 또는 꾸준한 운영 권리를 가지는가에 대해 사회적인 맥락 속에서 주요 관련 대중들의 신뢰와 승인을 획득하는 위와 같은 개념이 바로 정당성이다(Allen & Caillouet, 1994). 즉, 사회적으로 구축된 규범, 가치, 신념과 정의(definition)라는 시스템 안에서 실체물의 행동이 바람직하고 적절하고 적합하다고 여겨지는 일반적인 인식이나 평가라고 정의하고 있다(Suchman, 1995). 사회적정당성은 크게 제도론적 사회적정당성과 전략적 사회적정당성 두 가지로 구분된다.

제도론적 측면에서는 조직구축의 방법과 운영방법 등 어떻게 사회에서 해당 조직이 평가되고 이해되는가를 결정한다고 보고, 자원을 단순히 이 현상들을 통해 얻어지는 것으로 여기고 있다. 제도론적 관점은 제도적 규칙을 수용하는 과정 자체를 정당성 획득과정으로 바라보는 접근이다. 반면, 전략적 측면의 사회적정당성은 관리적 시각을 견지하고 조직이 사회적 지지를 얻어내기 위해 연상 작용을 하는 상징을 조정, 배치하는 방법을 강조하며, 조직이 자원을 확보하기 위한 전략적 도구 혹은 조직의 자원 그 자체로 바라보는 접근이다(Suchman, 1995).

사회적정당성 관련해서 신제도주의 이론이 핵심적으로 떠오르고 있는데, 신제도이론의 핵심은 ‘조직이 생존하기 위해서

는 사회적정당성을 확보해야한다’는 것이다. 기업의 이해관계자가 조직이 경영활동을 잘하고 있는지? 잘못하고 있는지? 파악하기는 어렵다. 그래서 조직이 정당하나? 정당하지 않으나? 로 조직을 평가하는 것이 현실적이라고 주장하였다(Meyer & Rowan, 1977). 여기서 말하는 제도화(정당성)이란 당연한 것으로 여겨지는(Taken for granted)을 의미하여, 신제도이론을 연구하는 학자들은 동형화(서로 닮아감)하면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동형화 방법은 표준화를 따라가는 것, 잘나가는 기업이 하는 대로 따라 하는 것, 마지막으로 사회규범 및 가치를 공유하는 전문가들이 만든 규범을 준수하는 것을 의미한다. 기업이 사회적 가치와 규범에 순응함으로써 정당성을 얻는다는 점에서 제도적 관점과 공통적인 의견을 가지고 있지만, 전략적 관점은 외부 환경에 대한 의존을 조작하거나 주요자원이 배분과 원천에 대해 영향력을 행사하는 등의 적극적인 선택적 행위에 관심을 가지며, 정당성을 관리하는 기업의 능동적인 역할을 강조한다(강문정, 2006). 더불어 외부의 환경과 긴밀하게 연계되어 상호 작용하는 조직들이 그렇지 않은 조직에 비해 정당성을 더 높일 수 있었고 나아가 기업 정당성의 증가는 필요한 자원의 획득을 용이하게 하여 기업의 생존율을 높인다(Oliver, 1991). 특히 신생 조직의 경우 기존 조직들과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창업가의 역량 부족, 기업의 축적된 지식 및 이해관계자들에 대한 사회적 인지도 부족으로 인해 생존에 어려움을 겪는 경향이 있으며 이를 신생의 불리함으로 규정하였고, 이를 극복하는 기제가 중요하다고 주장하였다(Stinchcombe, 1965).

다음의 두 가지 이유에서 신생 조직에 친화적인 사회적 규범은 벤처기업의 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첫째, 사회적 규범은 행위에 대한 강제력을 가지기 때문이다. 사회적 규범은 공동체에서 공유되는 암묵적 규칙으로 정의될 수 있으며(Elster, 1989), 주어진 규범을 따르지 않는 행위에 대해 간접적인 제재를 가함으로써 강제력을 가진다(Cafferata et al., 2009; Kandori, 1992). 또한, 사회적 규범이 가진 문화적 가치와 믿음은 신생 기업의 형성과 기업의 활동에 중요한 가이드라인으로 작용하는데(Davidsson, 1995; Davidsson & Wiklund, 1997) 이는 사회적 규범은 특정 가치의 중요성에 대해 구성원들이 공유하는 믿음이기 때문이다(Lipset, 2000).

둘째, 사회적 규범은 신생기업의 생존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신뢰를 제공하는 원천이기 때문이다. 사회적 규범은 불확실성을 완화시키는 대안이 될 수 있으며, 사회적 규범에 대한 순응은 신뢰의 획득을 가능하게 하는 제도화된 수단이 될 수 있다(Meek et al, 2009). 또한, 사회적 규범은 공식적인 법률의 대체 역할을 하는 제도로서(Polinsky & Shavell, 2000) 신생기업의 사회적정당성 획득을 촉진하며(Suchman, 1995) 사회적 구성원들의 경제적 선택에 영향을 미친다(Lipset, 2000).

기존 연구는 사회학에서 정의된 사회적정당성의 개념을 벤처기업에 바로 적용시켰으나, 본 연구에서는 실제 경영환경에 맞게 경영자 및 주요 구성원의 과거경력, 내부조직의 역량,

시장의 이해관계자들이 인지한 시장성 및 신뢰성, 정부관련 이해관계자들로부터 자원을 획득 받아 발생하는 정당성으로 분류하여 개념을 적용하였다.

2.2. 벤처기업의 성과

기존 연구들은 재무적 성과나 비재무적 성과를 기준으로 성공을 정의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재무적 성과는 기업의 재무제표를 이용하여 산출되며, 비재무적 성과는 재무제표 이외의 자료를 활용하거나 응답자의 자기평가(self report)를 통해 측정된다. Santisteban & Mauricio(2017)는 IT startup들의 성공의 개념을 정립하기 위하여 기존 연구들을 분석하였다. 그들은 기존 연구들이 공통적으로 성장과 일자리 창출이라는 두 요소를 성공개념에 반영하고 있다고 보고 제품이나 서비스가 시장에서 원활하게 수용됨으로써 지속적인 수익을 실현하고 일자리도 창출하는 기업을 성공기업으로 보았다. Chirjevskis & Dvortsova(2012)는 원하는 방식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해주는 사업을 운영하는 것을 성공이라고 정의했다. 장수덕·이장우(2003)은 재무적 성과인 매출성장률과 이익률로 성공기업을 선정하였다. 이처럼 성공에 대한 정의나 측정방법이 연구자마다 차이를 보이고 있어 표준화시키기는 어렵지만, 본 연구는 매출향상 등 재무적 성과와 신제품 출시 등 비재무적 성과 기준으로 벤처기업의 성과를 선정하고자 한다.

2.3. 사회적정당성과 벤처기업의 성과 간의 관계

벤처기업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벤처기업의 성과에 미치는 창업자의 정당성 획득을 위한 기업가적 활동이나, 조직의 성향을 기반으로 한 정당성 획득의 연구가 이루어졌으나(김주희 외, 2014), 기존의 연구에서 더 나아가 사회적 정당성의 개념을 경영학적 관점으로 확대하여 이해관계자인 투자자들에게 정당성을 부여받아 생존에 필요한 자원 획득을 원활하게 할 수 있는 실질적인 연구의 필요성이 크게 대두되고 있다.

사회적정당성이란 기업을 둘러싼 이해관계자에게 기업의 존재 정당성이 인식되는지에 따른 것으로 기업에게 요구되는 외형을 가지고 있는지를 의미하며, 이것은 또한 적극적으로 전략적인 행동을 통해 획득할 수 있다고 판단되어지는데 이렇듯 벤처기업의 적극적인 행동이 가능한 요소는 창업에 대한 과거경력 경험, 조직의 역량, 시장 신뢰 및 정부의 자원 획득과 관련된 행동이 사회적정당성을 부여받는데 기여한다.

2.3.1. 과거경력정당성과 경영성과 간의 관계

과거경력정당성은 창업자를 포함한 주요 구성원의 과거경력에 대해 이해관계자가 부여하는 정당성이다. 즉, 중요한 이해관계자인 투자자들이 보기에, 창업가 또는 주요 구성원들의

과거 경력이 벤처 생존에 필요한 창업가 외모를 갖추었는지를 의미한다. 구체적으로, 과거경력정당성은 과거 창업경력과 해당 경력에 따른 투자획득 경험 및 회사 매매경험 등 과거 학습된 경력으로 정의되는데, 이들이 주요 이해관계자들인 투자자들에게 정당성을 부여하여 생존에 필요한 자원을 획득하게 한다.

첫째, 과거 창업에 대한 경력은 창업의 경험이 그렇지 않은 창업가 혹은 주요구성원 보다 네트워크 등 기존 자원에 대한 활용과 창업경험의 노하우를 기반으로 경영전략을 수행하여 성과창출의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어 투자자들에게 정당성을 부여받게 된다. 최병준 외(2013)은 공급자, 고객, 금융기관, 정부기관 등 네트워크별 원천에 따른 네트워크의 특징이 기업의 경영성과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네트워크의 특징보다는 각 네트워크의 원천에 따라 기업성과에 유의미가 있고 긍정적(+)인 관계성을 가지고 있다고 보았으며, 윤기창·김영래(2009)의 연구에 의하면 벤처기업의 외부네트워크역량은 해외의 시장에서 경쟁우위를 창출하는 데에 도움을 주고, 경영성과에 긍정적(+) 영향을 주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둘째, 과거 창업기업의 투자획득 경험은 창업기업 운영 당시 이해관계자들인 투자자들에게 정당성을 부여받아 정부와 시장으로부터 투자를 획득 받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과거경력은 현재 벤처기업 또한 과거 부여받았던 정당성의 전략을 이어받아 운영되기에, 사회적 규범으로 형성된 정부와 시장에 정당성과 시장성의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여 투자들에게 정당성을 부여받게 된다. 특히, 국내 벤처기업의 특성상 재무적 자원은 정부의 지원 혹은 벤처캐피탈로부터 지원을 받게 되는데, 자금을 지원받는 경우 해당 벤처의 기술력 및 인적자원에 대한 사회적정당성이 확보된다고 할 수 있다. 예컨대, 벤처기업의 특성상 기술력은 있지만 초기 운영, 투자비가 부족하기 때문에 자원에 대한 필요성이 중견기업 또는 대기업보다 더 크게 작용하게 된다. 이에 따라 외부의 자금 조달능력이 벤처기업의 성장 및 성공에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다. Chrisman & Leslie(1989)의 연구에서는 정부지원의 규모, 형태 등과 같은 13개 항목을 조사하여 기업의 성장에 영향 준 정도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벤처기업이 정부지원을 받을 시 단기적으로 매출 증가보다는 운영자금의 혜택을 받아 성과를 창출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셋째, 과거 창업기업의 매매경험은 과거 창업 및 운영했던 기업이 시장성을 부여받아 투자의 가치가 있었다는 것을 의미하여 더 나아가 이러한 매매에 대한 경험은 창업가의 경영 능력과 기존 창업기업의 창업가적 특성을 기반으로 벤처기업을 운영한다는 것을 의미하여 투자자들에게 정당성을 부여받게 된다. 이전 창업기업의 매매경험은 투자자로부터 벤처 생존에 필요한 자금을 유치하는데 필요한 창업가적 외모, 즉 과거경력정당성을 높여준다. 이렇게 형성된 과거경력정당성은 벤처생존에 필요한 자금조달을 원활하게 하여, 결국에는 벤처의 경영성과 향상에 기여한다.

2.3.2. 조직역량정당성과 경영성과 간의 관계

조직역량정당성이란 이해관계자가 창업기업의 조직역량에 부여하는 정당성이다. 즉, 중요한 이해관계자인 투자자들이 보기에 벤처 생존에 필요한 조직구성의 외모를 갖추었는지를 의미한다. 구체적으로, 조직역량정당성은 제품/서비스에 대한 내부조직 구성원의 전문지식, 외부 고급인력 영입여부, 학력 및 자격 유무 등으로 정의되는데, 이들이 이해관계자들인 투자자들에게 내부 조직의 역량에 대한 정당성을 부여받아 생존에 필요한 자원을 획득을 원활하게 한다.

첫째, 제품/서비스에 대해 전문지식을 가지고 있는 우수인력 채용 및 보유 여부는 신생기업인 벤처기업의 인적 성장 동력이 확보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인적 자원을 통해 향후 체계적인 기업 운영과 더불어 이익창출을 위한 기반이 마련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를 통해 경쟁우위를 확보하여 이해관계자들인 투자자들로부터 정당성을 부여받아 자원획득 기반을 제공한다. Baker et al.(2013)들은 기업의 경쟁우위 창출은 조직하위단위의 팀 역량 수준에 달려 있다고 보았으며, 인력의 질에 따라 팀 역량이 강화되고 이에 따라 경쟁우위가 확보된다고 하였다. Cannon-Bowers et al.(1995)들은 유효한 팀 성과의 선행요건으로서 팀 역량을 팀 지식과 팀워크 스킬, 팀 태도로 정의하고 있다. 팀 지식은 유효한 팀 성과를 결정하는 요건인 팀의 지식, 원리, 개념들로 규정하고, 그에 대해 구체적인 요소로서 구성원들 각각의 인력의 질을 기반으로 팀워크 스킬의 본질에 대한 이해, 팀 목표 및 사명에 대한 지식, 팀 활동에 대한 지식, 구성원 동료들의 역할과 책임에 관한 지식, 전략과의 연계를 들고 있다. 팀들이 자신들이 하고 있는 것에서 역량을 개발할 수 없다면 기업의 경쟁우위의 확보는 기대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으며, 팀 역량 수준의 강화를 위해서는 구성원 각각의 전문지식 그리고 외부 인재 채용 및 학력이 팀 역량 수준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둘째, 외부 우수인재 영입은 기존 대기업 대비 체계적 인적 자원이 부족한 벤처기업에게 있어 새로운 인적 자원 투입을 통해 해당 벤처기업이 경쟁력을 확보하였다는 것을 의미한다. 더 나아가 이를 통해 체계화된 시스템 도입을 바탕으로 성과 창출의 요인이 확보되었다는 것을 의미하여 투자자들로부터 정당성을 부여받게 된다. 기존 및 경쟁업체로부터 능력이 입증된 인력 채용은 투자자들로 하여금 안정적인 조직운영을 위한 조직역량을 인정받게 되어, 벤처의 조직역량정당성을 향상시킨다. 기업이 기술개발 또는 신제품 개발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조직 내에 현재 보유하고 있는 역량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기존 제품을 개선하고 보완하여야 하며, 외부인재 영입 및 대외적인 협력을 통한 혁신 활동을 활발하게 전개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인재 영입 및 활발한 혁신 활동을 전개는 조직은 그렇지 않은 조직에 비해 안정적인 성과를 보이며, 경영성과에 대한 변동 폭도 크지 않을 것이다(March, 1991).

셋째, 조직구성원들의 고학력 및 전문자격 여부는 개개인의

역량이 높다는 것의 객관적 지표로 볼 수 있으며, 이러한 개개인의 역량이 조직이라는 구성체에 합산되어 해당 조직의 성장성 향상에 기여한다. 무엇보다 인적자원의 역할이 중요한 벤처기업의 경우 인력의 학력 및 자격 여부에 따라 시장 및 대중의 신뢰를 얻도록 만든다. 이를 통한 투자자원 획득을 통한 성과 확대의 가능성이 높아져 투자자들이 조직역량정당성을 높게 판단하게 된다. Boyatzis(1982)는 “역량은 직무에서 효율적이거나, 우수한 수행을 보이는 개인의 잠재적인 특성”이라고 정의하였으며, Spencer & Spence(1993)는 “특정한 상황이나 직무에서 효과적이고 우수한 수행을 보이는 개인의 내적인 특성”이라고 정의하였다.

2.3.3. 시장관련정당성과 경영성과 간의 관계

시장관련정당성이란 이해관계자가 창업기업의 시장관련 역량에 대하여 부여하는 정당성이다. 즉, 이해관계자들이 보기에, 벤처 생존에 필요한 제품의 차별화 혹은 기술력의 우위 및 소비자 니즈에 맞는 제품을 제공하는지 등 시장관련 역량의 외모를 갖추었는지를 의미한다. 구체적으로, 시장관련정당성은 경쟁사와의 기술력, 상품에 대한 차별화 우위 및 높은 진입장벽의 시장성 확보, 특히 및 고객 니즈에 맞는 상품 출시에 따른 신뢰 확보 등으로 정의되는데, 이러한 조직의 시장관련 역량의 확보가 생존에 필요한 자원을 투자자로부터 획득하게 한다.

첫째, 벤처기업이 경쟁사와 비교하여 기술력 및 시장성의 차별화 우위를 가지게 될 경우 이러한 기술력을 바탕으로 지속적인 이익창출이 가능하게 된다. 이를 통해 해당 벤처기업은 시장성이 있는 기업으로 판단되어 투자자 및 소비자들에게 정당성을 부여받아 자원을 획득하게 된다. 기업이 기술적 우위를 선점하고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은 매출 증대 및 이익을 창출하고, 기업의 가치를 극대화하는 경영활동으로도 볼 수 있다. 특히, 니치마켓을 확보하여 차별화된 제품을 제공하고 경쟁력을 강화를 통해 시장의 정당성을 부여받는 것은 벤처기업에게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렇게 벤처기업의 성장을 위해서는 기술개발 및 연구개발능력을 통해 차별화된 제품생산 능력을 필수적으로 키워야 한다. 이렇게 기술력 확보를 위한 R&D 요인으로 많은 연구자들이 차별화된 제품 개발을 통한 투자 확보, 연구개발 인력비중 등과 같은 요인들을 선정 및 분석하였다(김영배·하성욱, 2000; 정진하, 2005; 최만기 외, 2002; Doms et al, 1995).

둘째, 진입장벽이 높은 4차 산업에서의 시장성 확보 및 특히 보유 여부에 따라, 투자자들은 4차 산업의 선두 기업으로 인지하여 높은 성공확률의 신뢰를 기반으로 정당성을 부여한다. 더불어 사회적으로 규범을 기반으로 대중 및 투자자들에게 인정을 받게 되는 특허 및 자격 인증은 투자자들로부터 해당 기업에 정당성을 높이게 된다. 벤처기업의 경우 진입장벽이 높은 산업일수록, 후발주자 및 기존 경쟁자의 모방가능성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어 정당성을 확보하는데 중요하다.

Sandberg & Hofer(1987)의 연구에서는 벤처기업의 기업전략, 산업구조 일반기업의 특성상 어떠한 산업에 속해서 사업을 영위하는가에 따라 성공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게 되는데, 성공에 대한 기준이 기업의 성장성이라 한다면, 정체된 산업에 속한 기업보다는 성장성 및 진입장벽이 높은 산업에 속한 기업이 성공에 대한 확률이 높다는 데 일치된 견해를 보이고 있다. Sandberg & Hofer(1987)의 연구에서는 벤처기업에 있어 높은 진입장벽 산업에서의 기술력 확보는 기업 성공의 중요한 요인이라 할 수 있으며, R&D 투자활동은 기업의 경쟁우위를 유지하고, 시장 진입을 위한 능력과 기업의 능력을 강화할 수 있는 활동이라고 하였다.

셋째, 시장 및 고객 니즈에 필요한 상품 제공을 제공하는 것은 벤처기업의 생존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다. 제품의 수명 주기가 짧아지고 고객의 니즈가 다양한 현 시점에서 벤처기업이 시장 및 고객 니즈에 맞는 상품을 제공할 경우 이는 이해관계자들인 투자자들에게 상품, 마케팅적 매력도를 향상시켜 투자에 따른 정당성을 높이게 된다. 특히, 벤처기업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기술혁신을 위해서는 제품 차별화의 중요성과 더불어 Felekoglu & Moultrie(2014)는 기업이 신제품을 개발하여 출시한다고 하여도 새로 출시한 모든 신제품이 많은 수익을 가져다주는 것은 아니라고 했으며, Blackburn(1991)은 점점 제품 수명 주기가 짧아지고 있어, 기업이 좋은 경영성과를 얻기 위해서는 시기적절하게 제품을 출시해야 하며, 차별화되고 고객이 원하는 제품의 출시가 중요하다 하였다. 즉, 고객의 니즈에 맞는 차별화된 제품 출시와 더불어 지속적인 기술개발이 벤처기업의 성과에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다.

2.3.4. 정부관련정당성과 경영성과 간의 관계

정부관련정당성이란 이해관계자가 사회적 규범으로 형성된 정부의 자원 및 인증 획득을 기반으로 창업기업에 부여하는 정당성이다. 즉, 벤처 생존에 영향을 미치는 정부의 자본 지원, 인증 획득 등 정부의 자원 획득을 통해 이해관계자인 투자자들에게 정당성을 획득할 수 있는 외모를 갖추었는지를 의미한다. 구체적으로, 정부에서 제공하는 자원 및 자격을 부여받았거나, 정부 자원의 획득을 통해 이해관계자인 투자자들에게 사회적 규범을 통해 형성된 정부로부터 자원을 획득하였다는 정당성을 부여받아 생존에 필요한 자원을 획득하는 것을 의미한다.

첫째, 정부 및 정부관련 민간부문의 지원금 획득은 사회적 규범으로 형성된 정부의 합리적 지원으로 벤처기업의 성장성이 확보되어 있다는 것을 암묵적으로 의미하며, 더 나아가 자원 지원에 따른 인적, 물적 개발을 통해 이익 창출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에 따라 투자자들에게 정당성을 부여받아 자원의 획득이 이루어지게 된다. 장수덕·이장우(2003)의 연구에서는 성공한 벤처기업과 일반벤처기업을 분류하여 자원능력을 연구 분석한 결과 성공한 벤처기업이 자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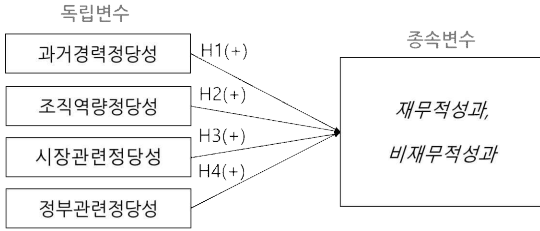
동원력이나 기술능력에 있어 일반 벤처기업보다 높은 결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 벤처기업은 초기 죽음의 계곡을 지나기 위해 내외부의 다양한 자금지원 정책을 활용하기 위해 노력하게 되는데, 이는 벤처기업이 경영 약화에 직면하는 다양한 원인 가운데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재정적인 문제 탓이라 할 것이다. 이러한 재무적 자원은 인력자원의 확보 및 기술개발의 역량의 향상을 위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며, 투자된 금액으로 최대의 효율을 만들어 내는 역할을 하기도 하는데, 지식기반산업인 벤처산업에서는 그 중요성이 더욱 크게 나타나며 특히, 사회적 규범으로 형성된 정부의 지원은 다른 투자자들에게 영향을 미치게 되어 그 중요성은 더 높다.

둘째, 정부로부터 획득한 교육 및 컨설팅 진행여부에 따라 투자자들은 벤처기업의 운영 능력이 체계화 되었다는 신뢰를 하게 된다. 또한 체계적인 운영으로 벤처기업이 이익을 창출할 가능성이 높아져 생존의 가능성이 커짐에 따라 투자자들에게 정당성을 부여받게 된다. Lerner(2000)의 정부지원에 대한 연구결과를 보면 정부지원을 받는 기업과 지원을 받지 않은 중소기업의 성장률이 차이가 있다는 점을 볼 수 있으며, 첨단 산업일수록, 벤처캐피탈의 활동이 많은 지역일수록 더 큰 차이가 나타나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또한, 정부지원을 통한 기술력 확보 후에는 벤처캐피탈의 자금 지원을 상대적으로 더 많이 받는 것으로 연구결과 확인되었다. 이것은 정부의 지원자체가 기술에 대한 검증은 받았다고 할 수 있으며 확인 효과로 인해 외부 자금조달을 더욱 원활하게 할 수 있는 계기가 된다고 할 수 있다.

셋째, 정부관련 인증 획득 및 자격취득 여부는 투자자들에게 해당 벤처기업이 정부의 인증을 통해 시장의 신뢰를 획득하였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벤처기업의 활동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를 통해 향후 성장의 기대감을 부여하여 정당성을 부여받게 된다. 유세준·양희순(2001)은 코스닥에 상장된 벤처기업과 중소기업청에서 벤처기업 확인서를 발급받은 업력 3년 이상의 벤처기업을 대상으로 회귀 분석한 결과를 통해 벤처기업의 자금 조달 능력이 높을수록 경영성과가 더 좋아진다고 주장하였다. 즉, 벤처 투자를 통해 자금 조달에 성공한 기업은 인력을 확충하고 기계 및 사무시설 등의 물적 자본을 확보하여 후속 연구개발에 더 많은 자금을 투자하며, 시장지배력을 확대하기 위해 판로를 개척하는 등 초기 기업과는 다른 규모와 범위에서 경영전략을 고민하게 된다. 특히, 투자 획득의 과정에서 정부의 인증 및 자격획득은 투자자에게 시장 신뢰 및 성장의 기대감을 높여 자본의 투자를 획득하게 되며 이를 통해 시장지배력을 확보할 수 있다고 하였다.

III. 가설 설정

본 연구의 연구모형은 <그림 1>과 같다.



<그림 1> 연구의 모형

재무적, 비재무적 성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회적정당성 요인 중 과거 창업경험, CEO창업경력 등의 과거경력정당성, 전문지식을 가지고 있는 인력과 관련한 조직역량정당성, 경쟁사와의 비교우위, 시장진입장벽, 아이템 등의 시장관련정당성, 정부, 민간의 지원 등의 정부관련정당성으로 구성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연구가설을 실증적으로 검증하기에 앞서 각 변수와 관련된 참고문헌을 검토하였고, 이를 토대로 본 연구에서 탐구하고자 하는 연구가설은 다음과 같다.

가설 1: 과거경력정당성은 재무적/비재무적 성과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2: 조직역량정당성은 재무적/비재무적 성과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3: 시장관련정당성은 재무적/비재무적 성과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4: 정부관련정당성은 재무적/비재무적 성과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3.1. 변수의 조작적 정의 및 측정

본 연구에서 제시한 가설과 측정하고자 하는 변수들은 추상적이며 포괄적인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 따라서 연구의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서 이러한 변수들을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형태로 제시하는 조작적 정의(Operational Definition)가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기존 선행연구들에서 검증된 변수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 맞도록 수정·보완하여 다차원적인 항목으로 측정될 수 있도록 하였다.

3.1.1. 벤처기업의 사회적정당성

본 연구에서는 벤처기업의 사회적정당성 하위요인으로 과거 경력정당성, 조직역량정당성, 시장관련정당성, 정부관련정당성

으로 구성하였다. Zimmerman & Zeitz(2002)의 벤처기업의 정당성확보에 관한 연구를 바탕으로 박수정(2008)의 기업의 정당성인식에 대한 내용을 수정·보완하여 작성하였다. 변수의 조작적 정의 및 측정항목은 선행연구를 참고해 재구성하였다. 벤처기업의 사회적정당성의 조작적 정의와 측정항목은 <표 1> 같다.

<표 1> 벤처기업 사회적정당성의 측정항목

변수	측정요소	참고문헌
과거경력 정당성	1.CEO 창업경력 2.구성원 창업경력 3.구성원이 창업했던 기간 1년 이상 4.과거 창업했던 회사의 정부지원금 받은 경험 5.과거 창업했던 회사의 벤처 케피탈 투자 경험 6.창업했던 회사의 매매 경험	Zimmerman & Zeitz (2002) 박수정 (2008)
조직역량 정당성	1.제품/서비스에 대한 전문지식을 갖고 있는 인력 보유 2.기존 업체 또는 경쟁관계에 있는 업체의 전문 인력 외부영입 3.제품/서비스에 대한 전문지식을 갖고 있는 인력 채용여부 4.CEO 또는 구성원들의 학력은 고학력이다. 5.CEO 또는 구성원들은 제품/서비스와 관련된 전문자격여부	
시장관련 정당성	1.경쟁사와 비교하여 제품/서비스의 차별화우위 2.경쟁사와 비교하여 기술력의 우위 3.제품/서비스는 4차 산업과 연관 또는 내용을 포함 4.시장의 진입장벽이 높다 5.제품/서비스는 시장을 선도하는 아이탬이다 6.비즈니스모델은 현 시장의 문제를 해결해주는 아이탬이다 7.소비자들에게 필요하며 존재해야하는 아이탬 8.제품/서비스 관련 특허 보유	
정부관련 정당성	1.정부에서 제공하는 지원금을 받았다. 2.정부에서 제공하는 컨설팅서비스 혹은 교육을 받았다. 3.정부기관, 협회에서 수여하는 인증을 받았다. 4.정부기관, 협회에서 수여하는 자격을 취득하였다. 5.정부 기관에서 지원을 받았다. 6.정부관련 민간부문으로부터 지원을 받았다.	

3.1.2. 벤처기업의 기업성과

본 연구에서는 기업 성과에 대한 변수의 조작적 정의와 측정항목은 백기도(2019), 강한혁(2019)의 연구내용을 중심으로 수정·보완하여 작성하였다. 기업성과의 조작적 정의와 측정항목은 <표 2>와 같다.

<표 2> 벤처기업 사회적정당성의 측정항목

변수	측정요소	참고문헌
재무적 성과	1. 재무적 성과는 향상되고 있다. 2. 재무적 성과는 업계 평균보다 높은 편이다. 3. 매출은 개선되고 있다. 4. 손익은 개선되고 있다. 5. 수익성은 업계 평균보다 높은 편이다. 6. 신용등급은 경쟁사보다 높은 편이다. 7. 자금조달과 상환 능력은 경쟁사보다 높은 편이다.	백기도 (2019) 강한혁 (2019)
비재무적 성과	1. 창업제품보다 개선된 신제품을 출시한다. 2. 신제품을 1번 이상 출시했다. 3. 고객의 니즈를 만족시키는 상품을 출시한다. 4. 신상품은 경쟁사 대비 향상/차별화된 상품을 출시한다. 5. 신상품은 경쟁사 대비 고객 만족도가 높은 상품을 출시한다.	

3.2. 자료처리 방법

이 연구의 자료처리는 Spss 25.0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빈도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연구도구인 사회적정당성, 기업성과 요인의 타당도와 신뢰도를 파악하기 위해 탐색적 요인분석, 신뢰도 분석(Cronbach's α)분석을 실시하였다. 사회적정당성과 기업성과 간의 상관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피어슨(Pearson)상관계수를 통해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그리고 사회적정당성이 기업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IV. 실증분석

4.1. 변수의 타당도 및 신뢰도

본 연구에서는 사회적정당성척도, 기업성과척도에 대한 타당도 및 신뢰도 분석을 하였다. 사회적정당성과 기업성과에 대한 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해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연구도구의 타당도를 알아보기 위해 경영학 전공 교수 2인, 경영학 전공 박사 2인, 벤처기업 경영관련자 2인에게 설문내용에 대한 검증을 받은 후 최종설문을 작성하였다. 또한, 측정하고자 하는 의미를 정확하게 측정하였는가를 나타내는 개념으로 구성타당도(construct validity) 검증방법인 탐색적 요인분석(Factor analysis)을 실시하였다.

요인분석 방법으로 주성분 분석(principal component analysis)을 실시하였으며, 요인 추출방법으로 요인수를 지정하는 방법과 고유값(eigenvalues)이 1보다 큰 값들로 요인화를 판단하는 방법으로 실시하였다. 회전방법은 직각회전방식인 kaiser 정규화가 있는 오블리민방식으로 사용하였다. 본 연구의 독립변수인 벤처기업의 사회적정당성, 경영성과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3>과 같다. 벤처기업의 사회적정당성 요인 최초문항에서 요인적재치, 공통성 등이 낮은 시장관련정당성 요인 중 “진입장벽”, “시장선도 아이템”, “소비자들에게 존재해야 하는 아이템”, “관련 특허 보유” 등을 나타내는 4, 5, 6, 7, 8번, 정부관련정당성 요인 중 “정부기관 및 협회의 자격 취득 여부”, “정부관련 지원 여부” 등을 나타내는 4, 6번, 과거경력 정당성 요인 중 “과거 창업기업의 정부지원금”, “벤처 캐피탈 투자 경험”, “매매경험” 등을 4, 5, 6번 문항을 제거한 후 분석을 재차 시행하였다. 벤처기업의 사회적정당성, 경영성과 요인 분석 결과 6개의 요인이 추출되었다. 적합도를 나타내는 수치인 KMO(Kaiser-Meyer-Olkin) 계수는 .865, Bartlett의 구형성 검증값은 4263.611, 자유도(df)=351, 유의확률 $p=.000$ 으로 나타나 요인분석이 적합함을 알 수 있다. 분산의 누적 설명력은 66.215%로 나타나 6개 요인은 사회적정당성, 경영성과 요인을 66.215%를 설명하고 있다. 요인 1은 재무적성과, 요인 2는 정부관련정당성, 요인3은 비재무적성과, 요인 4는 조직관련정당성, 요인 5는 과거경력정당성, 요인 6은 시장관련정당

성으로 명명하였다.

<표 3> 사회적정당성 타당성 및 신뢰도 분석

항목	1요인	2요인	3요인	4요인	5요인	6요인
재무적성과 4	.880	.071	.010	-.017	.071	.171
재무적성과 3	.823	.141	.021	-.004	.031	.136
재무적성과 7	.787	-.074	-.075	-.065	.029	-.128
재무적성과 5	.779	.012	-.034	-.038	-.003	-.102
재무적성과 1	.778	-.081	-.025	.034	-.022	-.185
재무적성과 2	.778	.058	.021	.094	-.025	.079
재무적성과 6	.756	-.040	-.049	.089	-.080	-.028
정부관련 1	-.055	.888	-.066	-.053	.016	-.044
정부관련 5	-.007	.863	-.040	-.021	.006	-.059
정부관련 2	.109	.853	.090	-.037	-.036	-.102
정부관련 3	.094	.588	-.143	.227	-.035	.110
비재무적성과 3	-.023	-.012	-.924	.027	.024	.145
비재무적성과 2	.000	.034	-.839	.043	-.033	-.054
비재무적성과 4	-.003	.083	-.832	-.157	.086	-.030
비재무적성과 5	.047	-.124	-.832	.125	-.009	.028
비재무적성과 1	.084	.076	-.750	-.049	-.027	-.055
조직관련 3	-.029	.112	.007	.758	.213	.134
조직관련 5	.083	-.068	.016	.713	-.150	.016
조직관련 2	-.037	.182	.037	.681	.157	-.009
조직관련 1	.207	-.076	-.086	.581	-.034	.054
조직관련 4	.010	-.072	-.079	.563	.009	-.233
과거경력 3	.030	-.011	.026	.074	.843	.165
과거경력 1	.003	-.084	-.077	-.082	.767	-.177
과거경력 2	-.028	.062	-.015	.101	.691	-.159
시장관련 1	.089	.038	.042	-.077	.183	-.794
시장관련 2	-.018	.231	-.057	.081	.068	-.661
시장관련 3	.004	.134	-.188	.387	-.155	-.424
아이겐값	7.811	3.228	2.086	1.877	1.723	1.154
설명 변량	28.931	11.956	7.724	6.951	6.381	4.273
누적 변량	28.931	40.886	48.611	55.561	61.943	66.215

Kaiser-Meyer-Olkin의 표본적합성 측정=.865
Bartlett의 구형검정=4263.611, df=351, Sig.=.000

동일한 개념을 반복 측정 했을 때 동일한 측정값을 얻을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 알아보는 것을 신뢰도 검증이라 한다. 이러한 신뢰도를 나타내는 Cronbach's α 값은 다음 <표 4>과 같이 나타났다. 과거경력정당성 .702, 조직역량정당성 .735, 시장관련정당성 .739, 정부관련정당성 .854, 재무적성과 .915, 비재무적 성과 .898로 나타나 기준치인 0.6을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나, 내적 일관성이 확인되어 측정항목에 대한 신뢰성이 확보되었음을 확인하였다.

<표 4> 각 요인의 신뢰도 분석

항목	Cronbach's α
재무적성과	.915
정부관련정당성	.854
비재무적성과	.898
조직관련정당성	.735
과거경력정당성	.702
시장관련정당성	.739

4.2. 표본의 특성

4.2.1. 인구통계학적 특성

본 연구는 벤처기업의 사회적정당성이 기업성장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한 실증 분석을 위해 2021년 06월 14일부터 06월 18일까지 설문을 실시하였다. 설문은 2019년도 벤처기업 현황(중소벤처기업부, 2020)에서 분류한 첨단제조(에너지/화학/정밀, 의료/제약, 컴퓨터/반도체/전자부품, 통신기기/방송기기), 일반제조(기계/자동차/금속, 음식료/섬유/비금속/기타제조), 첨단서비스(소프트웨어개발/IT기반서비스, 정보통신/방송서비스), 일반서비스(도소매/연구개발서비스/기타서비스) 등 총 36,503개 벤처기업을 대상으로 비확률 표본 추출 방법(non-probability sampling method) 중 편의 표본 추출방법(convenience sampling method)을 활용하여 설문을 실시하였다. 연구자는 응답자에게 연구의 목적과 방법을 설명하고 온라인 설문지를 사용하여 작성한 링크를 발송하거나 이메일을 통해 데이터를 수집하였다. 배포된 설문지 중 354부가 회수되었으며, 이중 불성실한 응답자나 이상치(outlier)로 판단되는 설문지를 제외한 300부가 최종 분석에 사용되었다. 분석에 활용한 총 300개 벤처기업의 설문응답자들의 성별, 연령, 직위, 사회생활기간, 사업장 재직기간, 업종, 연 매출액, 창업연수, 종업원수, CEO연령대 등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분석해 보면 아래 <표 5>와 같다.

<표 5> 표본의 인구통계학적 특성(n=300)

구분	항목	빈도	비율(%)
성별	남	249	83.0
	여	51	17.0
연령	30대	40	13.3
	40대	130	43.3
	50대	97	32.3
	60대 이상	33	11.0
	CEO(창업자 등)	284	94.7
사회생활기간	5-7년 미만	8	2.7
	7-10년 미만	15	5.0
	10년 이상	277	92.3
현사업장재직기간	1-3년 미만	48	16.0
	3-5년 미만	51	17.0
	5-7년 미만	33	11.0
	7-10년 미만	37	12.3
	10년 이상	131	43.7
업종	제조업	67	22.3
	기술서비스	148	49.3
	서비스/숙박/요식업	20	6.7
	유통(온라인 쇼핑몰 포함)	18	6.0
	지식서비스(교육, 컨설팅)	22	7.3
	기타	25	8.3
연매출액	1억 미만	11	3.7
	1-5억 미만	21	7.0
	5-10억 미만	49	16.3
	10-20억 미만	47	15.7
	20-50억 미만	61	20.3
	50-100억 미만	52	17.3
	100억 이상	59	19.7

창업연수	2년 미만	7	2.3
	3-5년 미만	28	9.3
	5-7년 미만	24	8.0
	7년 이상	241	80.3
종업원수	5인 미만	31	10.3
	5-10인 미만	56	18.7
	10-20인 미만	61	20.3
	20대 이상	152	50.7
CEO연령대	30대	13	4.3
	40대	75	25.0
	50대	132	44.0
	60대 이상	80	26.7

4.2.2. 기술통계 및 상관관계

이 연구에서 설정한 벤처기업의 사회적정당성과 기업성관련인의 평균, 표준편차, 왜도(skewness), 첨도(kurtosis)의 값으로 다변량 정규성을 파악하였다. 결과는 다음 <표 6>과 같이 나타났다. Hu & Bentler(1999), 김계수(2013) 등은 측정 변인들의 다변량 정규성을 파악하는 방법으로 왜도와 첨도를 확인하였다. 왜도는 절대값 3.0이하, 첨도는 절대값 8.0이하면 자료가 다변량 정규성을 확보하였다고 할 수 있다고 하였다. 이 연구에서 사용된 측정 자료의 왜도와 첨도 선행연구에서 제시한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나타나 정규성을 확보함을 파악하였다.

<표 6> 기술통계분석

변인	N	최소값	최대값	평균	표준편차	왜도	첨도
시장관련정당성	300	1	5	3.111	.684	-.202	.185
정부관련정당성	300	1	5	2.651	.939	-.068	-.657
조직역량정당성	300	1	5	3.558	.701	-.684	1.402
과거경력정당성	300	1	5	3.136	1.066	-.482	-.466
재무적성과	300	1	5	3.115	.719	-.427	.374
비재무적성과	300	1	5	3.078	.829	-.239	.081

회귀 분석에 앞서 본 연구에서 측정되는 변수간의 관련성을 확인하기 위해 변수 간 피어슨 상관계수를 통해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측정된 결과는 아래 <표 7>과 같이 나타났다. 김주환 외(2009), 김계수(2013)의 의하면, 상관계수가 .90보다 높게 나타나면 다중공선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언급하였다. 제시된 측정된 변인들의 다중공선성은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표 7> 변인의 상관관계 분석

	1	2	3	4	5	6
시장관련정당성	1					
정부관련정당성	.392**	1				
조직역량정당성	.540**	.289**	1			
과거경력정당성	.061	.191**	.126**	1		
재무적성과	.488**	.272**	.387**	.136**	1	
비재무적성과	.620**	.336**	.319**	.298**	.460**	1

*p<.05, **p<.01

4.3. 가설검증

4.3.1. 벤처기업의 사회적정당성이 재무적 성과에 미치는 영향

벤처기업의 사회적정당성이 재무적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기 위해 다중회귀분석을 시행하였다. 분석결과는 다음 <표 8>과 같다. 분석결과 모든 회귀모형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오차의 자기상관을 검증하기 위해 Durbin-Watson 값을 확인한 결과 2.074로 2에 가깝기 때문에 오차의 자기상관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제변수인 연매출액, 창업년수, 종업원수를 투입하고 벤처기업의 재무적 성과를 종속변수로 설정하여 통계적 유의성을 분석한 결과 F값은 3.962로 나타나 유의확률 .01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제변수인 매출액은 재무적 성과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창업년수, 종업원수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모형 1>).

독립변수인 사회적정당성 요인을 투입하고 벤처기업의 재무적 성과를 종속변수로 설정하여 통계적 유의성을 분석한 결과 F값은 16.781로 나타나 유의확률 .000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사회적정당성 요인 중 시장관련정당성, 정부관련정당성, 조직역량정당, 과거경력정당성은 재무적 성과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모형 2>).

<표 8> 사회적정당성이 재무적 성과에 미치는 영향

변수		모형1		모형2	
		β	t	β	t
통제변수	(상수)		13.232***		5.002***
	매출액	.152	2.016*	.084	1.260
	창업년수	-.056	-.906	-.066	-1.226
	종업원수	.078	1.042	.049	.738
독립변수	시장관련정당성			.369	5.933***
	정부관련정당성			.171	2.856**
	조직역량정당성			.162	2.690**
	과거경력정당성			.151	2.561*
R^2		.039		.287	
수정된 R^2		.029		.270	
R^2 변화량		.039		.248	
F값		3.962**		16.781***	

*p<.05, **p<.01, ***p<.001 Durbin-Watson: 2.074
종속변수: 재무적성과

4.3.2. 벤처기업의 사회적정당성이 비재무적 성과에 미치는 영향

벤처기업의 사회적정당성이 비재무적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기 위해 다중회귀분석을 시행하였다. 분석결과는 다음 <표 9>과 같다. 분석결과 모든 회귀모형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오차의 자기상관을 검증하기 위해 Durbin-Watson 값을 확인한 결과 1.862로 2에 가깝기 때문에 오차의 자기상관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제변수인 연매출액, 창업년수, 종업원수를 투입하고 벤처

기업의 비재무적 성과를 종속변수로 설정하여 통계적 유의성을 분석한 결과 F값은 2.379로 나타나 유의확률 .05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제변수인 매출액, 창업년수, 종업원수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모형 1>).

독립변수인 사회적정당성 요인을 투입하고 벤처기업의 비재무적 성과를 종속변수로 설정하여 통계적 유의성을 분석한 결과 F값은 27.947로 나타나 유의확률 .000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사회적정당성 요인 중 시장관련정당성, 정부관련정당성, 조직역량정당성, 과거경력정당성은 재무적 성과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모형 2>).

<표 9> 사회적정당성이 비재무적 성과에 미치는 영향

변수		모형1		모형2	
		β	t	β	t
통제변수	(상수)		10.175***		1.550
	매출액	.118	1.552	.007	.108
	창업년수	.066	1.073	.044	.900
	종업원수	-.001	-.010	.020	.332
독립변수	시장관련정당성			.598	10.504***
	정부관련정당성			.189	2.922**
	조직역량정당성			.147	2.471*
	과거경력정당성			.146	2.463*
R^2		.024		.401	
수정된 R^2		.014		.387	
R^2 변화량		.024		.378	
F값		2.379		27.947***	

*p<.05, **p<.01, ***p<.001 Durbin-Watson: 1.862
종속변수: 비재무적성과

V. 결론

본 연구는 선행연구를 기반으로 하여 사회적 개념을 그대로 사용했던 연구가 대다수를 이룬 사회적정당성의 개념을 경영학적 연구로 확대하여 사회적정당성이 벤처기업의 재무적, 비재무적 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실질적으로 검증하고자 하였으며,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과거경력정당성과 벤처기업의 재무적, 비재무적 성과 간의 분석 결과이다. CEO 및 구성원의 창업경력 및 창업했던 기간 그리고 정부지원금과 투자받은 경험 및 회사의 매매경험이 벤처기업의 재무적, 비재무적 성과에 정(+)의 영향을 주었다. 벤처기업의 리더 및 구성원이 성과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창업경력이 그 기존 경험을 토대로 성과를 창출할 수 있었다. 이와 관련하여 Thompson & Strickland(1993)는 창업가는 개인의 심리적인 특성과 혁신성 및 역량을 토대로 결정되는 자신의 인지를 기반으로 의사결정을 일관되게 하기 때문에 창업가의 개인적인 업무적 경험과 축적된 전문적인 지식은 창업가가 경영전략을 수행하는데 영향을 미친다고 주

장하였으며, Baum & Wally(2003)은 창업가의 심리적 및 역량에 따른 특성은 기업의 경영성과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기도 하지만, 경영전략과의 매개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경영성과에 영향을 미친다고 설명했다. 즉, 창업가 및 주요구성원의 과거 창업경력에 따른 특성은 현재 벤처기업의 경영전략을 수행하고 추진하는데 기반이 된다고 할 수 있으며, 이는 결국 창업가 및 조직구성원의 창업과 관련된 과거경력, 창업에 따른 투자경험 및 매매경험이 이해관계자들인 투자자들에게 정당성을 부여받아 자원을 획득하게 되며 이는 결국 벤처기업의 성과에 정(+)의 영향을 미친다.

둘째, 조직역량정당성과 벤처기업의 재무적, 비재무적 성과 간의 분석 결과이다. 벤처기업의 내부 인력에 대해 전문지식을 가지고 있는 인력에 대한 보유 여부와 전문 인력을 외부로부터 영입하고 전문성을 가진 인재의 채용이 벤처기업의 재무적, 비재무적 성과에 정(+)의 영향을 주었다. 또한 구성원들의 학력 및 자격증에 대한 보유여부도 벤처기업의 재무적, 비재무적 성과에 정(+)의 영향을 주었다. Baker et al.(2013)들은 기업의 경쟁우위의 창출은 조직하위단위의 팀 역량 수준에 달려 있다고 보았으며, 팀들이 자신들이 하고 있는 것에서 역량을 개발할 수 없다면 기업의 경쟁우위 확보는 기대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다. 조직 내 팀과 같은 하위단위의 역량수준은 '의도된 목표와 현실화된 목표 간의 수렴성'이라고 정의하였으며, 경쟁우위를 위해서는 우수 인재의 보유와 영입이 중요하다고 하였다. 팀 역량과 관련된 기존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다양하게 팀 역량을 정의하고 있지만, 탁월한 팀 구성원 개개인들의 단순한 역량의 합을 기반으로 팀 구성원들 간의 상호적 작용을 통해 발현되는 집합적 관점에서 역량을 바라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벤처기업의 경우 각각 구성원들의 역량을 기반으로 팀 조직의 구성 그리고 그 조직의 역량을 강화시킴으로 대중들의 신뢰를 바탕으로 사회적정당성을 부여받고 이를 통해 재무적, 비재무적 성과에 정(+)의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나타낸다.

셋째, 시장관련정당성과 벤처기업의 재무적, 비재무적 성과 간의 분석 결과이다. 벤처기업이 경쟁사 대비 제품 차별화 및 기술력의 우위를 확보하고 있으며, 4차 산업 등 진입장벽이 높은 산업으로 사업을 확대하고 니치마켓을 창출하여 시장을 선도하는 아이템과 특허를 가지고 있을수록 사회적정당성을 부여받아 벤처기업의 재무적, 비재무적 성과에 정(+)의 영향을 주었다. 벤처기업의 생존을 위해서는 기술 혁신을 기반으로 차별화된 제품과 서비스를 출시하고 이를 통해 확보된 이익을 기반으로 차기 신제품을 개발하거나 니치마켓을 확보한다면, 이는 벤처기업의 생존에 선순환구조를 통해 시장의 신뢰를 얻어 정당성을 높여 자원을 획득하게 된다.

Blackburn(1991)은 점점 제품 수명 주기가 짧아지고 있어, 기업이 좋은 경영성과를 얻기 위해서는 시기적절하게 신제품을 출시해야 하며, 차별화된 성능과 디자인 그리고 출시 시기가 중요하다고 했다. 즉, 기술 확보를 통해 고객 니즈에 맞는 차별화된 제품 출시 및 진입장벽이 높은 산업으로의 진출은 기

업의 성장성에 대한 시장 및 소비자의 신뢰를 확보한다. 이러한 시장 및 소비자의 신뢰는 정당성을 높여 이해관계자들인 투자자에게 정당성을 부여받아 자원을 획득하게 되며 이를 통해 벤처기업 경영성과에 정(+)의 영향을 미친다.

넷째, 정부관련정당성과 벤처기업의 재무적, 비재무적 성과 간의 분석 결과이다. 정부로부터 자금지원과 교육의 기회 획득, 기관이나 협회에서 수여하는 인증이 정당성을 부여받아 벤처기업의 재무적, 비재무적 성과에 정(+)의 영향을 주었다.

기술혁신의 수행방법으로 벤처기업의 자체적인 역량 및 자원을 활용하는 경우 외에 벤처기업의 외부자금의 활용여부는 자원이력이 부족한 벤처기업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며, 기업의 성과를 향상시키는 핵심적인 요인으로 작용한다(Lee et al., 2001; 강원진 외, 2012). 일반적으로 벤처기업은 발아 단계(Seed stage), 신생기업 단계(start-up), 성장초기 단계(early-growth), 확장 단계(expansion)를 거치면서 성숙되고 안정된 기업으로 변모한다(박용린, 2013). 이를 고려할 시 벤처기업 성장단계별 적합한 외부 자금조달 및 지원은 안정적 기업으로 성장하기 위한 핵심 요인이라 할 수 있다.

유세준·양희순(2001)은 코스닥에 상장된 벤처기업과 중소기업청에서 벤처기업 확인서를 발급받은 업력 3년 이상의 벤처기업을 대상으로 회귀 분석한 결과를 통해 벤처기업의 자금조달 능력이 높을수록 경영성과가 더 좋아진다고 주장하였다. 즉, 정부는 대중들의 신뢰와 승인을 기반으로 형성되었기에 사회적정당성을 합리적으로 획득한 주체이고 이에 따라, 사회적정당성을 가지고 있는 정부의 지원이 투자자들로부터 정당성을 높여 벤처기업 성과에 정(+)의 영향을 미친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실무적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다. 생존율이 낮은 벤처기업의 생존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사회학적 연구인 사회적정당성을 벤처기업의 경영기술로 활용할 경우 생존율이 높아질 수 있다는 시사점을 제공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과거경력 및 시장관련정당성을 가진 기업일수록 투자자의 관점에서 투자의 매력이 높아질 것이며, 이는 시장과 소비자의 신뢰를 기반으로 민간 및 정부의 지원과 투자가 확대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시장과 정부의 지원은 조직을 확대하고 그 역량을 높이게 되어 생존을 위한 지속적인 선순환 구조가 확립되어 벤처기업의 재무적, 비재무적성과가 향상된다.

학술적인 측면으로는, 벤처기업의 성공 가능성에 대한 평가에 있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던 경영학의 전략적 관점을 사회학 기반의 사회적정당성을 경영학으로 확대하여 사회적정당성을 통한 벤처기업 운영이 벤처기업의 경영성과에 정(+)의 영향을 미친다는 관계를 밝혔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평가를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

본 연구는 벤처기업에 대한 재무적, 비재무적 성과를 사회학적 요소인 사회적정당성을 벤처기업에 맞는 세부적인 경영학적 요소로 확대하여 최초로 분석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적용한 모형은 개별 창업벤처기업

의 세부적 특성을 반영하기에는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 본 연구에서 다양한 기업의 분포를 모형 내에 반영함으로써, 벤처기업의 규모가 고려되었으나, 세부 시장성에 따른 기업별 특성은 고려되지 못했다. 따라서 향후 사회학적 연구를 경영학적 연구로 확대하여 벤처기업의 성과 간의 연구가 진행될 때 벤처기업의 규모에 따른 성과를 분석한 연구가 수행될 필요가 있다.

REFERENCE

- 강문정(2007). *기업명성과 공중의 이슈 프레임이 기업정당성 인식에 미치는 영향* 석사학위 논문,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 강원진·이병현·오광근(2012). 국내 벤처기업의 성장단계별 외부 자원활용이 기술 혁신 성과에 미치는 영향. *벤처창업연구*, 7(1), 35-45.
- 강한혁(2019). *창업자의 창업동기, 창업가정신 그리고 창업가 역량 특성이 창업기업 지속가능성에 미치는 영향: 창업기업 경영 성과를 매개로 하여*. 석사학위논문, 연세대학교 경영·창업대학원.
- 김계수(2013). *Amos 18.0 구조방정식모형 분석*. 서울: 한나레이카데미.
- 김영배·하성욱(2000). 우리나라 벤처기업의 성장단계에 대한 실증조사: 핵심성공요인, 환경 특성, 최고경영자 역할과 외부자원 활용. *기술혁신연구*, 8(1), 125-154.
- 김주환·김민규·홍세희(2009). *구조방정식 모형으로 논문쓰기*. 서울: 커뮤니케이션북스.
- 김주희·김창수·남대일(2014). 사회적 정당성이 벤처 기업의 성과에 미치는 영향. *벤처창업연구*, 9(4), 13-25.
- 박수정(2008). *기업 명성과 기업의 사회적 책임 활동 동기 및 적합성이 위기 시 기업 정당성 인식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삼성중공업기름유출 사례를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 박용린(2013). 벤처생태계 현황과 발전 방안. *과학기술정책*, 191, 45-52.
- 백기도(2019). *내부감사인의 특성이 경영성과와 지속가능경영에 미치는 영향* 박사학위논문, 서경대학교 대학원.
- 벤처기업협회(2020). *2020년 벤처기업정밀실태조사*. Retrieved(2020.12.30) from <https://venture.or.kr/#/home/home-main>.
- 유세준·양희순(2001). 한국 벤처기업의 성공요인에 관한 연구. *생산성논집*, 15(2), 1-32.
- 윤기창·김영래(2009). 한국 벤처기업의 글로벌화 정도와 성과에 관한 연구. *국제경영연구*, 20(2), 29-63.
- 이수정·윤정구(2012). 기업의 사회적 책임 활동에 대한 정당성 인식이 종업원의 조직시민행동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CEO의 비전적 리더십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지식경영연구*, 13(4), 31-54.
- 장수덕·이장우(2003). 벤처기업의 기업가, 환경, 경영전략 그리고 조직구조 특성, 경영성과 변화. *한국경영과학회지*, 28(2), 35-60.
- 정진하(2005). *국내 벤처기업의 성장요인 분석*. 세종시: 한국개발연구원.
- 중소벤처기업부(2020). *벤처기업현황*. Retrieved(2021.10.22.) from <https://www.mss.go.kr/site/smba/main.do>.
- 최만기·신진교·남준호(2002). 한국벤처기업의 성공요인에 관한 탐색적 연구. *계명대학교 산학연구소*, 308-332.
- 최병준·박동수·정성한·이영기(2013). 벤처기업의 네트워크, 조직역량 및 기업성과. *대한경영학회지*, 26(12), 3115-3146.
- Aldrich, H., & Fiol, M.(1994). Fools rush in, The institutional context of industry creation. *Academy of Management Review*, 19(4), 645-670.
- Allen, M. W., & Caillouet, R. H.(1994). Legitimation endeavors: Impression management strategies used by an organization in crisis. *Communication Monographs*, 61, 44-62.
- Ashforth, B., & Gibbs, B.(1990). The double-edge of organizational legitimation. *Organization Science*, 1(2), 177-194.
- Baker, B., McGrath, J. M. Pickler, R., Jallo, N., & Cohen, S. (2013). Competence and Responsiveness in Mothers of Late Preterm Infants Versus Term Infants. *Journal of Obstetric, Gynecologic & Neonatal Nursing*, 42(3), 301-310.
- Baum, J. R., & Wally, S.(2003). Strategic Decision Speed and Firm Performance. *Strategic Management Journal*, 24(11), 1128-1129.
- Beak, K. D.(2019). *The effects of the characteristics of internal auditor on management performance and sustainable management*. Doctoral Dissertation, Seokyeong University, Korea.
- Blackburn, J. D.(1991). *Time-based Competition: The Next Battleground in American Manufacturing*. Irwin Professional Pub.
- Boyatzis, R. E.(1982). *The Competent Management: A Model for Effective Performance*. New York: John Wiley & Sons.
- Burgel, O., & Murray G. C.(2000). The international market entry choices of start-up companies in high-technology industries. *Journal of International Marketing*, 8(2), 33-62.
- Cafferata, R., Abatecola, G., & Poggesi, S.(2009). Revisiting Stinchcombe's 'liability of newness': a systematic literature review. *International Journal of Globalisation and Small Business*, 3(4), 374-392.
- Cannon-Bowers, J. A., Tannenbaum, S. I., Salas, E., & Volpe, C. E. (1995). *Defining Competence and Establishing Team Training Requirements*. San Francisco, CA: Jossey-Bass.
- Cassar, G.(2014). Industry and startup experience on entrepreneur forecast performance in new firms. *Journal of Business Venturing*, 29(1), 137-151.
- Chirjevskis, A., Dvortsova, A.(2012). Assessment of qualitative success factors of innovative E-business startups. *Social Science Letters*, 2(2), 51-56.
- Choi, B. J., Park, D. S., Jung, S. H., & Lee, Y. K.(2013). Networks, Competences, and Firm Performance in Ventures. *Korea Journal of Business Administration*, 26(12), 3115-3146.
- Choi, M. K., Shin, J. K., & nam, J. H.(2000). An Exploratory Study on the Critical Success Factors of Korean Entrepreneurial Business Ventures. *The Research Institute for industry-Academic*, 308-332.
- Chrisman, J. J., & Leslie, J.(1989). Strategic, administrative, and operating problems: The impact of outsiders on

- small firm performance. *Entrepreneurship Theory and Practice*, 13(3), 37-51.
- Davidsson, P.(1995). Culture, structure, and regional levels of entrepreneurship. *Entrepreneurship & Regional Development*, 7(1), 41-62.
- Davidsson, P., & Wiklund, J.(1997). Values, beliefs, and regional variation in new firm formation rates. *Journal of Economic Psychology*, 18(2), 179-199.
- Dimov, D.(2010). Nascent entrepreneurs and venture emergence: Opportunity confidence, human capital, and early planning. *Journal of Management Studies*, 47(6), 1123-1153.
- Doms, M., Dunne, T., & Roberts, M. J.(1995). The role of technology use in the survival and growth of manufacturing plants. *International journal of industrial organization*, 13(4), 523-542.
- Dowling, J., & Pfeffer, J.(1975). Organizational Legitimacy: social values and organizational behavior. *Pacific Sociological Review*, 18(1), 122-136.
- Elster, J.(1989). Social norms and economic theory. *Journal of Economic Perspectives*, 3(4), 99-117.
- Felekoglu, B., & Moultrie, J.(2014). Top Management Involvement in New Product Development: A Review and Synthesis. *Journal of Product Innovation Management*, 31(1), 159-175.
- Hu, L. Z., & Bentler, P. M.(1999). Cut off criteria for fit indexes in covariances structure analysis: conventional criteria versus new alternatives.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6(1), 1-55.
- Jang, S, D., & Lee, J. W.(2003). Entrepreneur, Environment, Strategy, Structure, and Performance Changes of High-Tech Ventures. *Journal of the Korean Operations Research and Management Science Society*, 28(2), 35-60.
- Jung, J. H.(2005). *Analysis of Growth Factors of Domestic Venture Companies*. Sejong City: KDI.
- Kandori, M.(1992). Social norms and community enforcement. *The Review of Economic Studies*, 59(1), 63-80.
- Kang, H. H.(2019). *Effect of entrepreneurial motivation, entrepreneurial spirit, and entrepreneurial competency characteristics on the sustainability of entrepreneurship companies*. Master Dissertation, yonsei University, Korea.
- Kang, M. J.(2007). *The effect of corporate reputation and public issue frame on recognizing corporate legitimacy*. Master Dissertation, ewha womans University, Korea.
- Kang, W. J., Lee, B. H., & Oh, W. K.(2012). Impact of Business Diversification Strategy on Firm Performance of Post-IPO Ventures in Korea. *Asia-Pacific Journal of Business Venturing and Entrepreneurship*, 7(1), 35-45.
- Kim, J. H., Kim, C. S., & Nam, D. I.(2014). The Impact of Social Legitimacy on the Performance of New Venture. *Asia-Pacific Journal of Business Venturing and Entrepreneurship*, 9(4), 13-25.
- Kim, J. W., Kim, M. K., & Hong, S. H.(2009). *Writing a thesis in a structural equation model*. Seoul: communication books.
- Kim, K. S.(2013). *Amos 18.0 Structural equation model analysis*. Seoul:Hannare Academy.
- Kim, Y. B., & Ha, S. O.(2000). Differences in KSFs, Environments, CEO Roles, and the External Linkages Among Korean Ventures at Different Growth Stages. *Journal of Innovation Technology*, 8(1), 125-154.
- Korera Venture Business Association(2020). *2020 Survey of Korea Venture Firms*, Retrieved(2020.12.30.)from <https://venture.or.kr/#/home/home-main>.
- Lee, C., Lee, K., & Pennings, J. M.(2001). Internal Capabilities, External Networks, and Performance: A Study on Technology-Based Ventures. *Strategic Management Journal*, 22(6-7), 615-640.
- Lee, S. J., & Yoon, J. K.(2012). Effects of employees' perceptions of CSR Legitimacy on their citizenship behaviors: The role of moderation by CEO's visionary Leadership. *Knowledge Management Research*, 13(4), 31-54.
- Lerner, J.(2000). The government as venture capitalist: the long-run impact of the SBIR program. *The Journal of Private Equity*, 3(2), 55-78.
- Li, X., Yang, J., Liu, H., & Zhuang, X.(2021). Entrepreneurial orientation and green management in an emerging economy: The moderating effects of social legitimacy and ownership type. *Journal of Cleaner Production*, 316. Retrieved from <https://doi.org/10.1016/j.jclepro.2021.128293>
- Lipset, S. M.(2000). *Values and entrepreneurship in the Americans*, In: Swedberg, R. (Eds), *Entrepreneurship: The social science view*.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 March, J. G.(1991). Exploration and exploration in organizational learning. *Organization Science*, 2(1), 71-87.
- Meek, William. R., Pacheco, Desiree. F., & York, J. G. (2009). The impact of social norms on entrepreneurial action: Evidence from the environment entrepreneurship context. *Journal of Business Venturing*, 25(5), 493-509.
- Meyer, J., & Rowan, B.(1977). Institutionalized organizations: formal structure as myth and ceremony.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83(2), 340-363.
- Ministry of SMEs and Startups(2020). SMEs and Startups Status, Retrieved(2021.10.22) from <https://www.mss.go.kr/site/smba/main.do>.
- Mintzberg, H.(2009). *Managing*, San Francisco: Berrett-Koehler Publishers, Inc.
- Nowacki, C., & Monk, A.(2020). Ambidexterity in government: The influence of different types of legitimacy on innovation. *Research Policy*, 49(1), 10-38.
- Oliver, C.(1991). Strategic responses to institutional processes. *Academy of Management Review*, 16(1), 145-179.
- Oviatt, B. M., & McDougall, P. P.(1995). Global start-ups: Entrepreneurs on a worldwide stage. *The Academy of Management Executive*, 9(2), 30-43
- Park, S. J.(2008). *A study on the effect of the corporate reputation, perceived motivation and perceived fit of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on the recognition of corporate legitimacy in crisis: Based on the oil spill incidence of Samsung Heavy Industries*. Master Dissertation, Ewha Womans University, Korea.

- Park, Y. L.(2013). Current Status and Development Plan of Venture Ecosystem. *SCIENCE & TECHNOLOGY POLICY*, 191, 42-52.
- Polinsky, A., & Shavell, S.(2000). The economic theory of public enforcement of law. *Journal of Economic Literature*, 38(1), 45-76.
- Sandberg, W. R., & Hofer, C. W.(1987). Improving new venture performance: The role of strategy, industry structure, and the entrepreneur. *Journal of Business venturing*, 2(1), 5-28.
- Santisteban, J., & Mauricio, D.(2017). systematic literature review of critical success factors of information technology startups. *Academy of Entrepreneurship Journal*, 23(2), 1-23.
- Spencer Jar, L. M., & Spence, S. M.(1993). Competence at work: Models for superior performance. *Journal of Management Studies*, 5, 74-82.
- Stinchcombe, A. L.(1965). *Social Structure and Organizations*. In: J. G. March (Ed.), *Handbook of Organizations*, Chicago, IL: Rand McNally and Company.
- Suchman, M.(1995). Managing legitimacy: strategic and institutional approaches. *Academy of Management Review*, 20(3), 571-610.
- Thompson, A. A., & Strickland, A. J.(1993). *Strategic management: concepts & cases*. Homewood, IL: Irwin.
- Weber, M.(1968). *Economy and Society*. New York: Bedminster Press.
- Yoo, S. J., & Yang, H. S.(2001). An Empirical Study on the Success Factors of Venture Business in Korea. *Korea Productivity Association*, 15(2), 1-32.
- Yoon, K. C., & Kim, Y. R.(2009). A Study on the Business Performance and Degree of Globalization of Korean Venture Enterprises. *International Business Journal*, 20(2), 29-63.
- Zimmerman, M. A., & Zeitz, G. J.(2002). Beyond survival: achieving new venture growth by building legitimacy. *Academy of Management Review*, 27(3), 414-431.

The Relationship Between Social Legitimacy and Performance in Venture Businesses*

Park Chan Woo**
Choi Chang Bum***

Abstract

This study investigated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social legitimacy and financial performance perceived for venture company. In particular, social legitimacy was classified into prior experiences, organizational competency, market-related, and government-related legitimacy according to the characteristics of venture businesses, and its effect on the financial and non-financial performance of venture businesses was verified. Data were collected by conducting a survey among 300 domestic venture businesses. According to the results it can be understood that social legitimacy affects the financial and non-financial performance of venture businesses. In other words, it was found that the acquisition of resources from external investors and governments which is justified by stakeholder and investors, venture business executives and employees' prior experience such as start-up experience, and retention of outstanding talent, etc., developing trust from the market and consumers through high organizational competency and differentiated product provision, have a positive effect on the financial and non-financial performance of venture companies. It can be interpreted that higher survival is possible through running the venture businesses with social legitimacy. In addition, this study is meaningful in that it presents a new standard for survival through measuring the relationship of the influence on substantial performance of venture businesses by expanding the existing sociological research to business management research.

KeyWords: venture businesses, social legitimacy, financial performance, non-financial performance

* This paper is based on the author's doctoral dissertation (Chung-Ang University).

** First Author, Doctoral Candidate, Graduate School, Chung-Ang University, pcw2512@naver.com

*** Corresponding Author, Professor, College of Business & Economics, Chung-Ang University, choilee@cau.ac.kr